

광주, 아기 '울음소리' 커진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 3451명... 6년 만에 출생아 수 증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시책 효과로 합계출산율 ↑

민선 7기 말, 광주 도심에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때 젊은 인구이탈 등으로 인구 급감을 고만했던 광주시는 6년만에 출생아 수 증가라는 경사를 맞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가임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증가한 지역에도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의 출산율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 결과물로, 올 상반기 전국을 대표하는 우수 행정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는 19일 2021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평가에서 광주시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했다. 전국 35개 기관의 정책이 수상후보에 올랐는데, 광주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의 출산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발표를 종합하면, 지난 5월 광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68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명(13.1%)이 늘었다. 올 1~5월 누계 출생아 수도 345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65명(8.3%)이나 증

가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광주만 유일하게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의 출생아 수 증가 비결을 묻는 문외도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2018년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1만명 이하(9105명)로 떨어지고, 지난해엔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까지 겪은 인구감소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019년 인구감소와 저출산을 막기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MOM) 편한 광주만들기' 정책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광주형 출산·보육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시는 단순히 출산율을 올리는 데 급급하지 않고, 생애 주기별 6단계(28개 사업)로 나눠 청년 만났부터 결혼, 임신, 출생, 육아·돌봄, 일·생활 균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꼼꼼히 설계했다.

특히 전문 의료인력으로 구성된 '해피아미맘 건강강화사' 등이 산모가정을 직접 방문·관리하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는 기대 이상이었다. 모두 수유 성공을 위한 유방 관리와 수유자세부터 영아돌연사증후군 방지를 위한 신생아 수면 자세 관리, 산모 신체·정신 건강 관리 등 현 젊은 부부들을 겨냥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덕분이었다. 시는 또 이미 태어난 아이의 육아지원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4시간 긴급 아이돌봄센터, 아동수당 등도 강화했다. 또 젊은 맞벌이 세대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거점 가족센터 건립, 임신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직장맘 친화 직장환경 조성 지원 사업 등에도 집중했다.

시는 특히 '광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광주 공동체가 키워내자'며 지난 1월부터 출생아 1명당 출생 축하금 100만원과 생후 24개월까지 매일 20만원씩 육아수당도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 부담 등 때문에 첫째아이만 계획했던 부부들이 둘째를 계획하게 됐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지난해부터 광주형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등에 나선 결과, 올 상반기까지 난임부부 953쌍이 임신에 성공하는 성과도 냈다. 지원이 없었더라면, 1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는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떠나는 곳에서 AI(인공지능)기업과 인재들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탈바꿈했고, 오는 9월에 광주형 일자리 기업인 GGM에서 신차 양산도 앞두고 있는 등 경제 1번지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단순히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 만들기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아이를 낳고 살고 싶어 하는 국내 제1의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여름 세찬 소낙비 19일 오후 광주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개일라스 폭우가 내리자 금남로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을 비롯해 다음주에도 소나기와 폭우가 수시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북스 - '커피 세계사+한국 가배사' ▶14·15면

'5·18 피에타' 도미아마다에코 별세 ▶16면



KIA 박찬호 "수비는 기본 타격은 도전"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언론중재법' 국회 문체위 통과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게 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4면〉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그대로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미디어개혁TF 소속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뼈대로, 문체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 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형태로 조정됐다. 하지만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닷새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사 전반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많은 야당 의원이 기립 요구인지 거수 요구인지도 제대로 못 듣고 있어 있었는데도 여당 의원들을 기립시켰고, 김의겸 의원이 제일 먼저 기립했다"며 "교조주의", "불법 표결", "의회 폭거"라고 성토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코로나 연일 30~40명대 신규 확진

광주 25번째 사망자 ... 전남 확진자 여수·순천·광양에 집중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광주와 전남에서 연일 30~4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광주에서는 코로나 19 사망자가 발생했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주에서는 모두 1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누적 확진자는 3797명이다. 서구 소재 보험회사 관련 1명, 광산구 호프집 관련 1명, 서울 등 타시도 관련 확진자 4명, 기 확진자 관련 3명 등이 다. 광주에서는 25번째 사망자도 발생했다. 지난 달 29일 양성 판정받고 조선대병원에 입원해있던 70대 환자다. 광주에서는 지난 18일 하루 동안 21

명이 신규 확진됐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12명이 신규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2417명이다. 순천 6명, 여수 3명, 광양·나주·담양 각 1명이다. 광주, 경기 용인 등 타지역 확진자 관련 2명이 포함됐다. 전남에서는 앞서 18일 하루 동안 모두 17명이 신규 확진됐다. 이틀간 발생한 30명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명이 전남 최대 인구 밀집지 여수·순천·광양에 집중됐다. 18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는 2152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3만808명이 됐다. 서울 575명, 경기 649명, 인천 153명 등 수도권에 신규 확진자가 집중됐다. /김형호 기자 khh@

제24회 무안 연꽃축제

연꽃축제

The 24th Muan Lotus Festival

8.18.(수) - 8.22.(일)

www.무안연꽃축제.com

주관 무안군 주최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

LIVE

사랑 소망 그리고 인연

무안연꽃축제

무안연꽃TV